

고흥군, 보건진료소 응급대응 역량 강화 현장교육 실시

응급상황 대응 실무교육으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



보건진료소 응급대응 역량 강화 현장교육 실시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3개 권역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것으로, 지역 최일선 의료기관인 보건진료소의 응급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진과 전남소방본부 구급대원이 강사로 참여해 심정지, 중증 외상, 급성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과 환자 평가,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119 연계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보성군청 찾은 초등학생들, 군수와 소통하며 꿈 키워

보성군은 지난 16일과 18일 이틀간 보성초등학교 2학년 학생 53명이 마을 연계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보성군청을 방문해 행정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학습은 아이들이 지역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보고 배우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군청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주요 부서를 둘러보며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살펴보고,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와 행정 절차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를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군수실을 방문해 김철우 군수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군정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강종수 기자

해남군, 치매 실종 모의훈련 실시

해남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황산면 한자리 치매안심마을에서 치매노인 실종 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가졌다.

이번 훈련은 농촌지역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치매 환자 실종 사고에 대비해 민·관·경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경찰서, 소방서, 황산면사무소,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종 신고 접수 △유관 기관 상황전파 △마을주민 합동수색 △보호자 인계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지역 자리에 밝은 마을 주민들이 수색 현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치매 안 전망의 실효성을 직접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와 배회 인식표, 배회 감지기 사업 등을 홍보하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윤보현 기자

진도군, 글로벌 근로자 올림픽 연다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오는 7월 4일(토) 오전 9시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제3회 글로벌 근로자 평화공감 한마음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회장 김남중)가 주관하며, "지금 진도! 세계는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탈북민, 자문위원, 지역 주민 등 약 1,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화합 행사다. 글로벌 근로자 올림픽은 출정식을 시작으로 ▲통일 장벽 넘기, 통일 지구공 띄우기, 통일 줄넘기, 한마음 사다리 등 체육 행사 ▲한복 착용 콘테스트 ▲초대 가수 공연 ▲개인별·팀별 장기 자랑 ▲시상식과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가영 기자

장흥, 전라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5년 수질오염총량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된 장흥군은 수질 보전 정책의 우수성과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장흥군은 지역의 주요 수자원인 탐진강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발사업 단계부터 오염원 관리와 사전 검토를 강화했으며, 하천 수질 모니터링과 오염원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강화와 비점오염원 관리, 주민 홍보 및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두연 기자

완도군, 바다숲 탄소 거래·블루 크레딧 시범 사업 추진



완도 다시마 양식장 전경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2026년도 바다숲 탄소 거래 및 블루 크레딧 시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바다숲 탄소 거래 및 블루 크레딧'은 어업인이 참여해 바다숲 조성·관리와 해조류를 양식하며 해조류가 흡수한 탄소량을 정량화해 탄소 크레딧 거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사업은 해조류 탄소 흡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보고·검증(MRV)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익 전환 가능성을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완도군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는 '바다숲 탄소 거래 시범 사업' 공모에서 6개소가 선정돼 바다숲과 해조류를 아우르는 탄소 크레딧의 생성·발급·거래 체계를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은 '바다숲 탄소 거래'와 '어업인 블루 크레딧'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모두 어업인이 참여

하여 2027년 말까지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고금 상정, 소안 미라·동진, 생일 금곡, 금일 동백, 신지 월부 등 6개소다.

어촌계 희망 유형에 맞춰 금일 동백은 곰피, 신지 월부는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양식형', 고금 상정은 잘피 숲 성체 이식, 소안 미라는 조하대 감대 이식, 생일 금곡과 소안 동진은 조간대 갯다리 및 유용자역 살포 등 '바다숲 조성형'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군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전문가와 협조하여 단계별 로드맵을 밝히나가고, 6월 말까지 사전 현장 점검과 초기 모니터링을 완료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바다숲 조성 및 해조류 양식을 본격 수행하며, 전문장비를 동원해 분포 면적과 생체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